

# 완도, 귀어·귀촌인 위한 파격 정책 내놔

###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 융자 지원

완도군은 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정착하면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귀어업인 및 재

촌 비어업인으로,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하며, '재촌비어업인'은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보면 창업

자금은 어업·양식업·소금 생산업·수산물 가공·유통업의 수산 분야와 어촌 관광·해양수산 레저 등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 구입(재촌 비어업인은 제외)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으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증빙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에 하면 된다.

신우철 군수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 비용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귀촌지원센터(061-555-60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 귀어 가구는 전체 어가 중 25.2%로 완도가 고향인 귀어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이두식 기자

### 무안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 평상시 6%·명절 10% 특별할인

무안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무안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내년 무안사랑상품권 발행·판매를 위해 준비 약 80억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 평상시 6%, 명절이 속한 달과 그 전담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지역 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으로 판매 중이다. 지류형 상품권(5000원, 1만원, 5만원) 또는 카드형 상품권(충전식)은 관내 판매대점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충전이 가능하다. 개인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모바일의 경우 총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으로 무안사랑상품권 지급과 관광지 입장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무안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1월은 설 명절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하오니 지역 농수축산물 등을 구입해 지역 내 소비촉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이 발행한 무안사랑상품권은 최근 3년간 누적 발행액이 2835억원이며 누적 판매액은 2781억원에 이르면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의 토대를 만들어 왔으며, 국비 104억 원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효과를 거뒀다. /무안=박태연 기자

## 강진서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 5일 열린다

### 도·강진·목포·영암·무안·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주최

강진군은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을 오는 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남도,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포럼에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김철우 교수의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발전방향'과 동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희승 교수의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통한 도자산업 관광

상품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다.

조창완(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영근(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과 교수),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승현(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오순환(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성수(광주매일신문 총괄본부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4개 시군은 내년 8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도 4개 시군의 협력을 통한 전라남도 도자기 엑스포 개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국제 축제로의 도약을 통해 파이 지체를 더 키워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진도군, 우흥섭 제31대 부군수 취임 "30여년 공직 경험 바탕으로 군민과 소통"



진도군은 제31대 우흥섭 부군수 취임식을 2일 밝혔다.

우 부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예향의 본 고장인 보배섬 진도군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공직자 여러분과 전남 서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진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민선 8기 김희수군수의 공약사항과 당면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각오를 밝혔다.

완도군 출신인 우 부군수는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완도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해양항만과, F1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거쳐 진도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 신안,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상' 수상 환경부 주관 운영평가서 우수시설 3개소 선정



신안군은 최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자은면 매립시설 등 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돼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발전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는 환경부가 전국 631개 폐기물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소각·매립부 346개소의 3.7%인 1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신안군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체 우수시설 13개소의 23%인 3개소가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 포함, 3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서지역 특성상 15개 매립시설과 17개 소각시설을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어 인력·조직·예산·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 시설 확충과 개선, 직무역량 강화 교육, 폐기물관리 자체 평가 등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신안군의 폐기물정책과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가져온 주목할만한 성과다.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공감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자원의 절약과 순환성 향상,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실시 등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 해남 가좌지구 등 위험도로 개선 210억원 확보

### 국토부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7단계 기본계획 7개소 반영

해남군이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관내 7개소, 21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은 도로 기하구조 취약지점 및 병목 구간 등 교통사고와 안전상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6단계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7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7단계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해남군은 내리막 급경사 커브구간으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고 오르막 커브구간의 도로폭이 좁아 차량 접촉 전복사고·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화산면 가좌지구 등 3개소에 25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는 국도 77호선과 군도 33호선 접속구간 중 통로박스가 협소해 회전반경이 부족하고, 군도 직진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문내 동의 교차로 개선 등 3개소 160억원, 해남읍 신안리를 진입

하는 통로구간 안개 개선사업에 25억원이 반영돼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성 등으로 사업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온 결과 이번 사업비 확보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2023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하고 교통정체를 해소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해남군)에 기부하고  
해남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2023. 1. 시행)

쉬운 기부해남군 사랑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해남에서 준비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1석3조

### 기대효과